

---

# 수술 전 위암환자의 T-병기 결정을 위한 MDCT로 얻은 MPR영상의 유용성 평가

부산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강동원, 송수준

---

**목 적** : 수술 전 위암의 T-병기 결정에 있어서 MDCT로 얻은 MPR 영상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된 65명의 환자(남자 49명, 여자 16명)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 분포는 29세에서 77세 사이였고 평균 연령은 56.3세였다. 4개의 검출기를 이용한 MDCT(LightSpeed QX/i ; GE Medical Systems.)가 사용되었으며 HQ 모드, 2.5 mm의 절편 두께를 사용하였으며 5 mm의 두께로 영상을 재구성하였으며 관상 및 시상의 재구성 영상을 얻었다.

**결 과** : 축상 단면 영상에서 60명의 환자에게서 병변을 발견하였고 5명에게서 병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발견하지 못한 병변은 전정부와 체부의 대만과 소만, 위 각부에 분포하였다. MPR 영상에서는 65명 모두에서 병변을 발견하였다. 병변이 가장 흔히 분포하는 곳은 전정부와 체부였다. 병기의 정확도는 축상 단면 영상에서는 69%였으며 MPR 영상에서는 89%로 측정되었다. 축상 단면 영상에서 19명에서 실제보다 저병기로 판정되었으며, 저병기로 판정된 병소의 위치는 축상 단면 영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병소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대개 체부와 전정부, 위각부의 대만과 소만에 위치한 경우였다. 과병기로 판정된 것은 1예였다. MPR 영상에선 2예가 저병기였으며, 과병기로 판정된 것은 5예였다.

**결 론** : MPR 영상은 축상 단면 영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특정 위치의 병변에 대해 병변의 위치와 범위를 명확히 제공하여 병변의 발견율이 높았다.

그러므로 수술 전 진행성 위암의 평가에 있어서 축상 단면 영상과 함께 얻은 MPR 영상을 이용한다면 병변의 위치와 병기의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리라 생각된다.